

2014년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3.20(목) 12:00~13:3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3월 13일 지방시대 아이템이 아직 단조로움. 보다 심도 있는 취재나 이야기 거리가 아쉬움. 이날 보도된 광주의 발달 장애아 일가족 자살 기사는 이어진 뉴스다이제스트에서도 중복하여 보도되었고 취재기자의 보도 외에 진행자자가 직접 전달하는 단신뉴스(프로게이머 자살, 날씨, 이혼부부 혼인신고 등)가 취재꼭지와 혼재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음.
전국은 지금, 지방신문 브리핑에서는 신문기사 화면을 직접 사진으로 캡처해서 소개하면 어떨지 보완이 필요해 보임(강대인 위원장)
- 신속, 정확한 보도가 필요함. 얼마 전 강남구청 폭발물 사건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quoted; 강남구청역 발견 의심물체 폭발물 확인(1보)) 게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 및 혼란 가중시킴(김연화 부위원장)
- 3월 11일 '9시 뉴스리뷰'에서 진주 추락 암석이 운석이 맞는지 보도하며 '운석의 진위, 가격 등' 분석 보도를 하는데 진위 논란이 있던 시기임을 감안하여 전문가 멘트를 활용했다면 더욱 신뢰도가 높았을 것이라 생각됨(이용진 위원)
- 정태수 한보 회장 부동산 압류 뉴스에서 국세청이 압류했다는 은마아파트 17동, 78년에 분양된 아파트라면, 설령 아파트 부지가 그동안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시효 취득했을 수 있기에, 국세청의 압류가 정당인지에 관한 의문이 들었음.
그런 점에서 사회부 기자라면,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나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분쟁가능성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보도를 해 주었다면 다른 언론과 차별성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임(최진녕 위원)
- 3월 20일 맹찬형의 시사터치 중력과 발견의 의미와 진주 운석 가치 보도(충남대 이태형 교수님과 인터뷰)에서는 맹찬형 진행자의 허접한 발음이 듣기에 조금 거북하였고, 천문학교수 패널에게 운석의 소유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움. 이러한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도표나 그래픽을 통해 한국의 무주물의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를 보여 주는 것이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라는 생각임(최진녕 위원)
-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뉴스가 정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추측성 기사가 지나치게 많을 것 같음. 또한 선거(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정치뉴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추측성 기사가 많아 보도의 신뢰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침(최현철 위원)

- 외신기자들이 한국 신문의 특성을 평가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이 한국 뉴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임. 정확하지 않은 뉴스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채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해야 함(최현철 위원)
- 3월17일자 "신율의 정정당당"프로그램 <김현희에게 듣는다... 말레이 항공 미스터리>는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프로였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항공기 실종사건을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씨가 출연해서 전문가도 아닌 김씨의 생각을 듣는 것은 프로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KAL기 사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임,
또 현재 재판중이며 국정원의 증거조작 문제로 초미의 관심인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사건에 대해 "유우성은 간첩인가? 탈북자인가?"자막과 유씨가 간첩인 것처럼 예단한 듯 한 질문하는 사회자나 김현희씨 답변은 객관성을 잃었음 (김용주 위원)
- 3월 13일 뉴스일번지 말레이 항공기 실종사건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 많은 인명이 실종되었고 아직 해결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추측이나 가설 등에 대해 뉴스에서 지나친 추측성 보도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 사건을 다루면서 과학저술가 보다는 항공 전문가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인사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이현규 위원)

▲ 화면구성 등 개선필요

- 실시간 뉴스 스크롤의 혼잡스러움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기사의 분야별 또는 장르별 구분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청 편의를 위해 필요한데 현재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등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고, 심지어 동일한 뉴스가 중복되어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강대인 위원장)
- 프로그램 출연자의 복장에 관해 약간의 관심 및 코칭이 필요한 듯함. 특히 방송 프로그램 MC는 그 매체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단정한 패션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점에서 3월 13일자 '맹찬형의 시사터치'를 보면 MC인 맹찬형 부장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팀장(부장?)으로 출연하신 분도 반쯤 풀린 넥타이에 느슨한 와이셔츠까지 더해져 식사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줌. 약간의 관심으로 매체 이미지 향상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음(이용우 위원)
- 뉴스와이는 화면에 너무 많은 자막과 화면이 겹쳐져 부산스러운 느낌을 주고, 매체의 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됨. 2월 10일자 16시 20분화면을 예로 들면, 자막만 8가지에, 로고·화면까지 겹쳐져 모두 11개 콘텐츠가 한꺼번에 떠 있음.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당황스럽고 게다가 지난달 언급했듯이 중복된 회사로고를 비롯해, 윤여준 전 장관 화면에 김만흠 원장이라는 엇박자 타이틀까지 더해져 매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므로 간결한 화면편집이 필

요함(이용우 위원)

- 2월 28일 '투나잇23' 왼쪽자막에서 '울어버린 야당 대변인' 자막이 있는데 화면은 3-4차례 바뀌어 다른 내용이 방영됨에도 자막은 그대로 있다 보니 보기에 많이 어색하였음(이용진 위원)
- 3월 9일 오전 9시 40분, 오후 8시 40분에 방영된 '한국기행' 어느 지역을 기행하는지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한참을 지나서야 내레이션을 들은 후 고창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한국기행이라는 메인자막 하단에 서브자막이 붙어주었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좋았을 것(이용진 위원)
- 3월 11일(화) 20시30분경 '8시 뉴스Y'에서 미 국방부 부차관 '크리스틴 워무스' 일본 핵무장 가능성 배제 못한다는 보도중 사진 아래 자막에 '미 국방 부차관'으로 처리되어 국방부라는 고유명사가 오기(이용진 위원)
- 지난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넣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음. 특히 북한 관련 뉴스는 자료화면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제시하는 영상이 언제 것인지 몰라 불편하고 때로는 크게 관계도 없는 영상이 제시될 때가 있어 혼란스러움(최현철 위원)
- 3월9일자 "세모녀자살사건"보도는 전문가(허선 순천향대 교수)가 출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를 잘 설명해준 좋은 보도였는데, 화면에 자살하기 위해 피운 번개탄 재가 남아 있는 냄비를 자꾸 비추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김용주 위원)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합뉴스 기자의 리포트와 뉴스와이 기자의 리포트의 차이가 너무 큼. 억양, 띄어서 읽기, 호흡, 목소리 크기 등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필요함. 연합뉴스 기자의 경우 기사를 읽고 전달하는 재교육에 회사가 투자할 필요가 있음. 방송뉴스 전달에 있어 전문성이 매우 떨어져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양승찬 위원)
- 사건과 사고 내용을 전달하는 앵커의 표정이 상대적으로 밝아 전하는 내용의 속성과 전달자의 자세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함. 사건 사고 보도에서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3월 14일 서울시장 경선 점입가경 관련 뉴스는 프롬프터 오류로 앵커가 다시 전달한다고 말하고 뉴스를 읽었음. 새로운 뉴스나 속보가 들어 올 경우 간혹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속보 전달에 있어 프롬프터 기사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한자, 외국어, 약어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약어의 경우, '말레이 여객기' 등과 이름에 직함이 소개되지 않아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한은 총재 후보나 포스코 신임회장 등의 이름이 직함소개 없이 제시되어 일반 시청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웠음(강대인 위원장)

▲ 프로그램 편성 및 기획의견

- 심층 탐사보도프로그램의 편성이 필요함. 취재 기자 및 데스크의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보도전문 채널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함(강대인 위원장)
- 보도채널, 종편채널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편성이 시청자들이 시청이 어려운 시간대인 새벽시간대에 편성하여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의 기회를 보장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성낙용 위원)
- 뉴스Y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옴부즈맨Y'도 13년 6월경에는 시청시간대가 비교적 양호한 B급 시간대인 일요일 08:30대에 편성하였으나 현재는 C급 시청시간대인 일요일 06:00대로 편성시간을 조정하여 시청자들의 시청이 용이하지 못함.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의 기회를 보장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도입취지에 맞게 시청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편 때 고려가 되었으면 함(성낙용 위원)
- 동일한 뉴스 아이템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복하는지? 새로운 아이템 배치와 기존 제작 아이템 반복 배치에 있어 시간상의 원칙이 있는지 뉴스 편성 주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음.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전날 보았던 기사가 다음 날 계속 반복될 때 새로움이 없었음. 전날 저녁에 보도한 내용을 다음 날 오전 어느 시점까지 반복하여 내보내고 있는지 시청자위원회에 설명을 해주기를 부탁함(양승찬 위원)
- 뉴스 아이템 간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음. 예를 들어, 국제 뉴스 전달한 후에 스포츠 뉴스가 나오고, 바로 뒤에 국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시청하기가 편하지 않았음. 제가 지금까지 주제가 유사한 뉴스끼리 묶어서 전달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런 식의 뉴스 아이템 제시는 혼란스러움(최현철 위원)
- 뉴스시간 편성이 들쭉날쭉하다는 지난달의 지적에 대해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아직도 일정한 시간편성 및 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뉴스와이만의 독특한 뉴스 편성시간을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이 시급함(강대인 위원장)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에 방송국의 이름 등을 고지하는 시간을 편성 운영하는 SB(station break)는 매우 유용함. 뉴스와이와 연합뉴스의 이미지인 '국내 최대의 해외 및 지방 취재망'을 부각 각인시키는 spot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용함으로써 후발 채널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강대인 위원장)
- 과거에 비해 북한 관련 뉴스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음.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북한 사회나 지도층의 변화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있지만, 김정은 동정을(예를 들면, 어느 공장을 방문하여 지도하였다. 어느 부대를 방문하여 지

- 도하였다 등)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북한 관련 뉴스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뉴스와이 고유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채널에 비해 뉴스와이만의 특징(또는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 뉴스와이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스페셜 이슈를 정기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네트워크 사회, 실종아이찾기(이 프로그램은 현재 채널A에서 하고 있음) 등 뉴스와이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특집이나 심층 보도가 필요함(최현철 위원)
 - 프로그램 기획제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 심층 분석. 창조경제 성과, 미흡한 점, 해법(창조경제 성과 등 사례 분석, 문제점 진단 등),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어떻게 가야 하나 등을 다루어 보면 좋을 것(이헌규 위원)

▲ 장애인 방송 및 보도관련 개선의견

- 뉴스 우측하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를 넣어 시각장애인의 뉴스 접근성을 제고 시도가 언제부터 도입된 것이고,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음(최진녕 위원)
- 관련하여 뉴스Y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을 배려하는 인증을 받고 있는지(최진녕 위원)
- 뉴스Y의 수화방송은 크로마키를 활용하여 수화통역사만(블루화면 없음) 화면 우측하단에 배치하여 방송내용을 농아인 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이는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화면과 수화통역사를 구분하는 선(에지선)이 없음으로 해서 방송화면과 수화통역사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때론 수화통역사를 방송내용 중의 한 인물로 인지할 수 있는 등 방송시청에 오히려 방해가 됨(성낙용 위원)
- 3월 8일 미니다큐 오늘 '다시 법정에게 묻다'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시청자가 주말에 차분하게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였음. 같은 날 '하모니'에서는 한국 거주 외국인의 일과를 따라 가면서 자연스런 인터뷰를 담았는데, 계속 반말로 인터뷰를 진행해 듣기 좋지 않았음. 외국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중의 하나가 특정이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이다. 이런 궁금증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이슈 발생 시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반응보도가 아쉽다. 예컨대 2월 17일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직후, 타 방송사들은 다양한 기관·단체의 반응들을 보도하였던데 비하여 뉴스와이는 상대적으로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아쉬웠다. 인력 및 장비 스케줄 등의 요인이 있기는 하겠으나, 보다 다양한 취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됨(이용우 위원)
- 3월7일 방송된 맹찬형의 시사터치는 김연아 열애설을 다루면서 디스패치 기자,

문화평론가를 출연시켜 대담형식으로 무려 15분 45초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디스패치 기자의 7개월간의 취재 뒷이야기와 김연아의 데이트 장면 스틸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데이트 방법, 김연아의 남친 등 관련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음. 이는 시청자의 관심거리, 궁금증 해소 정도의 접근이 필요했는데 15분 45초라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일종의 개인의 신상틀기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였음.

또한 WSJ, AFP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이 김연아의 열애 소식을 다루었다는 내용전함. 특히 AFP통신의 '한국이 피겨 여왕 김연아 연애에 사로 잡혔다'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통신은 김연아의 교재사실이 보도된 날 한반도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었지만 한국의 유일한 관심은 피겨 여왕의 사랑이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유일한 관심은 피겨 여왕의 사랑이었다고 전함' 이라는 굵은 자막으로 처리하여 강조했음. 이는 마치 한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는 관심이 없고 피겨 여왕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다는 기사로 보일 수 있었으며, 외신들이 김연아의 소식을 다루고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루고 자막까지 처리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음(성낙용 위원)

▲ 긍정적 평가

- 3월 13일 북한은 오늘 북한의 대의원 선거문화의 특징을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가 출연하여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시의적절 하였고, 출연인사도 신선한 인물이고 전문성과 겸비한 인사라는 인상이었음. 인터뷰 시 경쟁채널과는 차별성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강대인 위원장)
- 12시 뉴스 진행 중 우측하단에 수화자를 넣어 시각장애인의 뉴스 접근성을 제고시킨 점을 높이 평가함(최진영 위원)
- 3월8일자 스미싱 파밍보도는 금융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준 좋은 보도였음(김용주 위원)
- 3월 18일 아침뉴스 '중력파 검출... 초기 우주팽창 직접 증거 발견'이라는 과학 뉴스 보도가 눈길을 끌었음. 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우주과학(빅뱅증거)이론에 대해 이론의 역사와 중력파 검출의 이유를 요약, 정리해준 그래픽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형목교수의 전화 인터뷰 등 짧은 뉴스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쉬우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주었다고 보임. 과학뉴스의 경우 중요도에 비해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해도가 낮은 편인데 쉽게 구성된 좋은 예라고 보여짐(이헌규 위원)
- 3월 12일 아침뉴스에서 뉴스와이의 날씨소식이 다른 뉴스와 차별화 되어 보여 좋음. 특히 보도 중 캐스터가 직접 야외에서 실제 상황을 체험하면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생동감을 전달해 주었으며, 특히 '날씨 SNS'는 날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려주는데 기상 정보와 관련된 '윤석, 별뿔별 발견' 등 과

학기술 관련 소식을 통해 상식도 전달되고 실시간 반응을 공유할 수 있어 신선했음(이헌규 위원)

▲ 기타 의견

- 연합뉴스 홈페이지는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누구나 접속 가능함. 이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배너 광고의 규제 필요. 모바일 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헤드라인 사이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배너광고가 소비자의 편리성 및 편의성 저해시키는 것 같음(김연화 부위원장)